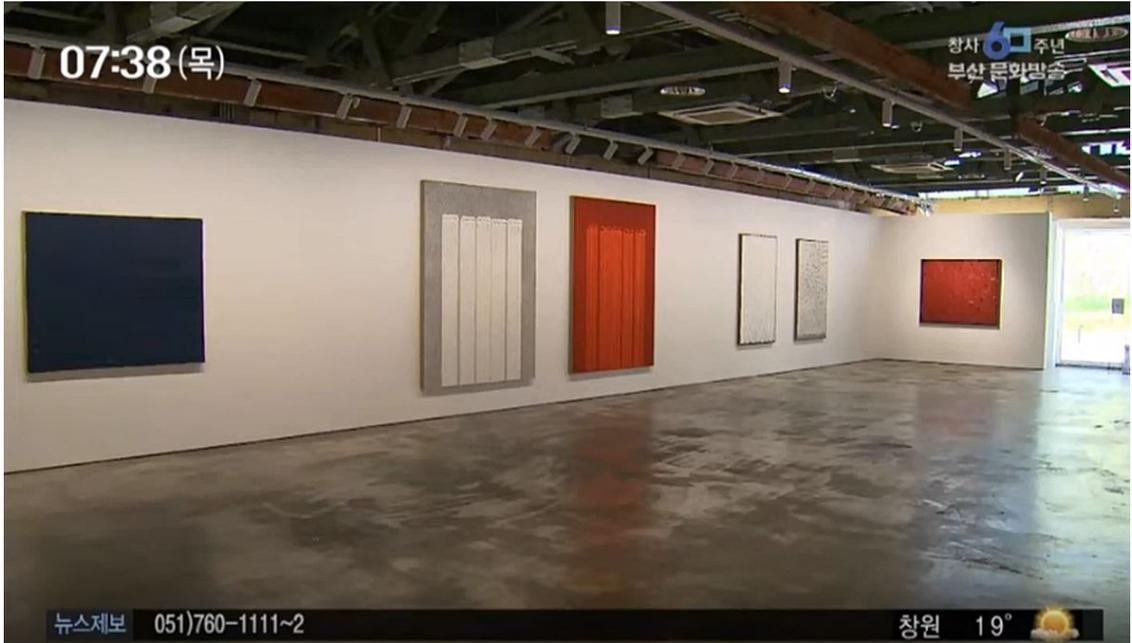


문화산책

June 6, 2019 | 정세민 기자

page 1 of 8







07:39 (목)

청사 60주년
부산 문화방송



NEWS TODAY 박서보, 김창렬 등과 함께 한국 현대미술 개척

날씨 오늘 밤부터 50~100mm 많은 비·내일 새벽 강풍예비특보 밀양 17° 

07:39 (목)

청사 60주년
부산 문화방송



NEWS TODAY 박서보, 김창렬 등과 함께 한국 현대미술 개척

정치 문 대통령 "미세먼지 30% 줄일 것...추경 통과 협력 당부" 거제 19° 







◀앵커▶

6월의 시작과 함께
지역 미술가에는 유명 작가들의
특색있는 전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

오늘은
수 십 년 혼자만의 작품세계를 고집해온
대가의 전시와
인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캔버스에 옮겨온
여성 작가의 전시회를 소개합니다.

문화산책, 정세민기자입니다.

◀리포트▶

한국 현대미술의 산증인인
하종현 화백이 부산을 찾았습니다.

박서보, 이우환, 김창렬 등과 함께
우리나라 추상미술계를 이끌어 온
하종현 화백이 부산에서
자신의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.

50년이 넘게 오로지 단색화!

그것도 굵은 마뎃자루의 뒷면에
두터운 물감을 바르고
천의 앞면으로 밀어내는 배압법을 통해 보여온 그의 철학은 무엇일까?

하종현 화백
" 예술이라는 것은 나만의 것 독창성이 있어야"

1935년 생 ! 84살 !
백발의 화가는
오는 21일 미국 미시간에서 그룹전을,
오는 9월 밀라노에서 개인전을 앞두고

지금도 매일 아침
새로운 소재와 기법을 고민하며
하루를 시작합니다.

MBC뉴스 정세민입니다.